

#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의 적층 양상

이 영 지\*

## 《 차 례 》

- |                      |          |
|----------------------|----------|
| 1. 들머리               | 의의       |
| 2. 이야기의 마디           | 4.1. 자청비 |
| 3. 이야기에 들어온 화소       | 4.2. 문도령 |
| 3.1. 당금애기와 제석신의 여정   | 4.3. 정수남 |
| 3.2. 오구신의 능력         | 4.4. 의의  |
| 3.3. 감은장 애기의 주체적 여성상 | 5. 마무리   |
| 4. 인물로 본 신화의 적층적 성격과 |          |

### <요약문>

본 글은 제주도 무가인 ‘세경본풀이’인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를 대상으로 이 신화에 수용된 다양한 무속신화의 유입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지역에서만 연회되고 전해지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구전되지만 이야기를 분석하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보편적 무속신화의 내용과 인물의 특징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창조적 기능과 발생의 근원을 풀어낸 신화들은 구조적으로 일정한 구성요소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런 신화의 구조적 분석으로 답음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는 구조적 답음보다 사건전개의 모티프가 되는 화소와 사건의 기능이

\*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지니는 닮음을 통해 신화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사건의 원인과 전개과정, 사건의 기능들이 다른 여성주체적인 무속신화들과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화소들이 다층적으로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수용되어 있음을 살펴본 것이다. ‘당금애기’ 이야기 화소의 공간적 이동경로와 이동의 상징성, ‘바리데기’ 이야기에 보이는 여주인공의 초월적 능력, ‘감은장 애기’ 이야기에서 여주인공이 보여주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운명 개척과 완성 등 여러 신화의 화소와 특징들이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무속신화의 구전적 전승과정에서 영향을 받으며 후대에 형성된 근거로 추론해 본 것이다.

주제어 : 제주 무가, 적층성, 서사성, 화소의 수용, 세경 본풀이, 농경신

## 1. 들머리

우리가 거론하는 건국 이야기는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 신화, 수로왕신화들이다. 이것들은 역사적 인물의 업적과 삶을 신화로 덧씌워 재구성된 이야기이지만 근원적으로는 고대인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표현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건국의 과정을 신격화하여 기록이 신화적 서사성을 지니고 있으나 우주의 근원적 창조를 상상한 원시적 신화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 인물의 절대적 권위와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역사기술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두고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창조적 신화는 무속신화라고 할 것이다.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우주를 창조하고 새로운 자연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직과 신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바리공주’ 이야기가 중등학교 국어책<sup>1)</sup>에 오를 만큼 우리 신화는 제 위치를 찾으면서 무속 신화가 무당의 무가 본풀이의 연회적 종교의식이 아니라 무궁

한 이야기로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현상을 이어가기 위해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신화들을 정리하고 우리 신화의 체계를 잡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신화의 확산에 줄이라도 이어가기 위해 이본들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미진한 분야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화 중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와 다른 대륙적 전승 신화들의 화소를 비교 분석한 뒤 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화소의 닮음에 대해 알아보고, 구성의 완성도가 높은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미친 다른 신화의 영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세경본풀이’의 서사성을 강조한 제목으로 제주 무가인데, 농경신의 탄생을 풀어내는 이야기이다. 신화의 주인공인 여성 자청비는 신적 지위를 획득하고 이끄는 능력에 있어서는 남성신들을 능가한다. ‘자청비’는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적인 여성의 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청비의 신화적 인물형은 다른 무속신화의 경우처럼 여성이 신적 능력을 획득하고 지배하는 여성신의 전형이다. 내륙의 무속신화의 여주인공들은 운명적 능력이 이미 부여된 대상이라면 ‘자청비’는 주체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를 통해 신능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농경신의 이야기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지만 신적 능력과 모습은 내륙의 신화들과 독립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청비의 모습에는 다양한 무속신들의 모습이 겹친다. 농경신이 되기까지 자청비는 자신의 앞날을 찾아 문도령을 좇으며 하늘신의 문을 두드렸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해 고난의 길을 떠났으며, 신적을 구하기 위해 하늘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해 농경신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청비는 내륙의 여신들과 닮은 성격을 보여준다. ‘세경본풀이’가 무가본풀이로서 연회되는 전승범위는 제주도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나, 신화로서 그 화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전개와 모티프와 화소들의 기능이 우리나라에 퍼져있는 다양한 신화를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가 ‘세경본풀이’는 설화적 명칭으로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라 부르기로

1) 중학교 2학년 2학기 2단원의 심화자료

한다. 여기서는 이야기 속에 들어온 여러 신화소를 분석하고 자청비의 신화적 성격을 형성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야기의 마디

농경신화로 분류되는 이 이야기는 창세신화나, 무조신화와 달리 구전의 분포가 넓거나 다양하지 않다. 제주도에서 전하는 ‘세경본풀이’ 무가를 풀이한 이 이야기는 농경신의 내력담을 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전하는 다른 농경신들은 대부분 수렵과 목축을 하는 산신을 남편으로 하는 부부신이 함께 등장한다.<sup>2)</sup> 마을마다 그 마을의 주업에 따라 그 신을 우위에 모신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 농경신인 여신을, 마을의 주업이 목축이나 어업이면 남신을 우위에 둔다. 그런데 무속신화의 주인공이 대부분 여신인 것은 이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곳곳에서 신년 초 가내의 평안과 행복을 비는 기원제외의 하나인 ‘맹감풀이’나 큰 곳에서 연회되는 곳내용에 ‘세경본풀이’굿과장이 들어 있다.<sup>3)</sup> 초감제나 배포침, 초공본풀이, 삼공본풀이와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큰 곳이 열릴 때마다 곳거리 과장으로 연회되지만 ‘세경본풀이’는 농경신이 등장해야 하는 정해진 곳에서만 연회되는 차이가 있다.<sup>4)</sup> 특히 제주도 곳거리에서 볼 수 있을 뿐 다른 지방의 곳에서는 연회되는 예가 극히 드물다.<sup>5)</sup>

2) 문무병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1993, 103쪽-121쪽. 농경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들은 ‘일땀할망’, ‘축일할망’, ‘송씨할망’, ‘옥황상제의 따님애기’, ‘서당국서’, ‘산실불도’, ‘보제또’ 등이 있다. 수렵목축의 산신과 부부신으로 등장하므로 산신신앙과 나눠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김태곤 「한국무속연구-한국무속총서Ⅳ-」, 집문당, 1995, 120-127쪽. 참조

4) 큰 곳을 할 때 연회되는 곳거리들은 대개 중심되는 본풀이의 곳 이외 여러 거리의 곳을 선행한다. 그런데 세경곳거리는 농경신을 위한 본풀이 곳으로만 연회될 뿐 다른 곳거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5)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이 자료집에 실린 ‘세경놀이’는 이들 상세경 문도령, 중세경 자청비, 하세경 정수남의 공덕을 기리는 심방

이런 굿풀이의 신화인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가 지닌 마디를 전개해 신화의 사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김진국 대감댁에 자녀가 없어 근심하다 동계나무상주사 중이 시주공양을 하면 자손을 본다는 말에 그 절에 시주하기로 약속한다.
- ② 약속대로 시주를 가던 중 서계나무 배급사 중을 만나는 바람에 그곳에 시주공양을 하고 만다.
- ③ 동계나무상주사 중이 분노하여 김진국 대감에게 딸을, 그 집 하녀 정수덕에게 아들을 점지한다.
- ④ 김진국의 딸 자청비는 정수덕과 빨래를 간 곳에서 옥황의 문도령을 만난다.
- ⑤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자신을 오빠라 속여 남장을 하고 글공부를 따라나선다.
- ⑥ 같은 해, 날, 시간에 태어난 자청비와 문도령은 삼 년 글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
- ⑦ 자청비는 여자임을 밝히고 문도령과 사랑을 나눈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문도령이 옥황으로 올라간다.
- ⑧ 정수남이 자청비의 말과 소 아홉을 먹어치우고 문도령을 만났다는 거짓말로 속임
- ⑨ 정수남이 자청비를 속여 산으로 데려가 욕보이려하자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임
- ⑩ 정수남을 죽인 죄로 쫓겨난 자청비는 사라대왕의 집에 우는 요망한 새를 없애 주고 그 집에 장검을 숨김
- ⑪ 사라대왕의 화초밭에 환생꽃을 구해 정수남을 살리지만 부모가 죄를 용서하지 않아 다시 집을 떠남
- ⑫ 자청비는 옥황에게 지은 죄로 하강한 노파집에 있는데 자신이 짝 배를 보고 찾아온 문도령을 바늘로 찌르는 실수를 범해 문도령과 노파의 버림을 받음
- ⑬ 옥황에 죄를 지은 선녀를 도와주자 선녀가 천상의 문도령을 만나게 해줌
- ⑭ 문도령과 부부가 되자 문도령의 정혼자가 자살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시부모의 미움을 사게 된다.
- ⑮ 대국천자를 치러온 외적을 물리친 자청비가 다시 문도령과 만나게 되었으나 사라대왕의 딸이 시기하여 또 헤어지게 됨
- ⑯ 자청비는 승전의 대가로 옥황상제로부터 인간세상의 농사신을 제수 받음(정수남과 더불어 오곡과 우마를 돌봄)<sup>6)</sup>

곳이 제주도에만 전한다.

6)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194쪽-204쪽

위 내용을 성격에 따라 묶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생담: ①~③ 자청비는 부친 김진국의 실수로 태어난 딸이며, 김진국이 바란 아들은 정수덕의 자식 정수남으로 탄생한다. 여기서 자청비가 여자로 출생한 것은 김진국 부부의 잘못 때문인데 이것이 자청비의 운명이다. 김진국의 실수로 온전한 아들이 아닌 결함 7을 지닌 자식인 딸로 태어난 자청비는 자신의 결함을 극복하고 점지된 능력을 얻는 과정에서 시련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문복한 점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계나무 배금사에 시주하고 또 백에 하나가 모자라게 시주함으로써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는 수난을 자청비가 겪게 된다. 대신 자청비의 운명을 빼앗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정수남은 자청비의 한 쪽 운명을 쥐고 살아간다.

2) 혼사담 ④~⑦ 자청비가 옥황의 문도령을 만나 인연을 맺고 헤어지는 혼인의 인연을 전개한다. 그들의 만남은 자청비가 먼저 적극적으로 문도령을 선택하고 따른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자청비의 주체적 행동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문도령을 본 자청비는 여성으로서 갈 수 없는 공부길에 남장으로 변복하고 문도령을 따라나서서 자신을 몰라보는 문도령을 깨우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스스로 혼인을 한 것이다. 이런 혼사에도 불구하고 자청비와 인연을 맺은 하늘의 신 문도령은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3) 땅수난담 ⑧~⑪ 자청비와 같은 운명을 타고 태어난 정수남은 자청비를 땅에서 부모에게 쫓겨나고 만들고 버림받는 수난으로 이끈다. 문도령이 떠나가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자청비는 자신의 능력을 얻기 위한 시련을 겪는다. 사라대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꽃을 구해 정수남을 살려냄으로써 다시 부모의 용서를 구하지만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아 다시 쫓겨난다. 땅의 수난이 이어진다.

4) 하늘수난담 ⑫~⑮ 자청비가 땅에서 계속되는 고난을 극복하고 문도령을 만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 뒤 또 수난이 이어진다. 이곳에서 자청비는 영

7) 프로이트도 여성은 남성이 지니고 있는 신체적 조건에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로 풀이하고 있다.

웅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하늘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권세를 얻어 문도령과 혼인을 하게 되지만 또 다른 방해인물과 사건들로 하늘에서도 고난은 계속된다. 자청비의 능력이 오히려 땅과 하늘에서 고난의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결국 자청비는 문도령과 헤어짐 이별을 하고 만다.

5) 곡신담: 16) 출생부터 이에 이르도록 뛰어난 능력과 정신에도 불구하고 수난의 시험을 거친 자청비는 옥황의 인정을 받아 농경의 신으로 직위를 받아 정수남과 함께 땅의 기업을 다스리게 된다.<sup>8)</sup>

위 구조를 정리하면 결핍의 출생, 천상배필과의 결합, 땅과 하늘에서의 연단을 위한 수난, 곡물신(농경신)직을 부여받는 것으로 신화구조가 구성되어있다. 그 구조의 첫 시작은 자청비의 출생담으로 원래 점지 받은 운명과 달리 시주의 잘못으로 자청비는 결핍된 인간의 모습인 여성으로 태어난다. 그 대신 원래 점지 받은 결핍이 없는 완전한 성은 정수남이 부여 받고 아들로 태어난다. 자청비 대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두 사람은 공동의 운명체임을 암시한다. 정수남은 농경의 신이 된 자청비의 명을 받아 오곡을 심고 우마도 돌보며 땅위의 생육을 함께 꾸려나간다.

혼인담에서는 하늘 옥황의 신인 문도령과 땅의 신인 자청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이들의 결합은 자청비가 신이 될 것을 예정한 부분이지만 결합은 또다른 이별을 예정하기도 한다. 그 결실의 능력은 자청비가 그럴만한 자격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별과 더불어 자청비의 능력을 검증받는 수난이 시작된다. 이는 땅과 하늘 두 공간에서 다 겪게 된다. 땅수난담에서는 정수남 때문에 받게 되는 자청비의 고난이다. 수난은 신적 인물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땅에서 겪는 수난과 극복을 통해 자청비는 죽은 이를 살리는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수

8) 장정임 “세경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교원대초등교육 석사, 2006. 이 글은 구조를 출생, 결연, 이별, 재회, 혼인, 공적, 신직획득담으로 나누고 있다. 다만 구조를 나열하긴 했으나 각 모티프가 갖는 서사기능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다.

난과 능력의 첫 시작에 불과하다. 다시 수난에 당면하게 되는데, 쫓겨난 자청비가 하늘에서 또 다시 수난을 겪는다. 이 수난은 땅에서 올라온 세력이 하늘에 이미 존재하는 세력과 부딪히면서 시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땅에서 부모가 정수남을 죽인 독한 딸을 받아들이지 못해 쫓아버렸듯이 하늘에서도 문도령의 약혼녀를 자살하게 만든 운명으로 인해 시부모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자청비는 끊임없이 수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늘, 땅 그리고 그 중간 세상에서 만난 노파에게서도 쫓겨나는 수난을 겪는다. 영웅이야기 구조의 중심을 이루는 수난담을 수용하고 있다. 뛰어난 영웅일수록 큰일을 이루기 위해 수난의 여정이 길고 치열하듯, 자청비도 여성영웅으로서 겪게 되는 수난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그가 지닌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 능력의 본질을 살펴보면, 우선 그의 출생은 자식을 간절히 바란 부모님의 공덕으로 이루어졌지만 공양이 한 치 부족하여 아들이 아닌 딸로 태어나는 기이한 운명에서 비롯된다. 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글공부를 따라나서는 자청비는 매우 적극적인 도전자인 것이다. 문도령과의 혼인 즉, 하늘나라와 결합 역시 자청비의 숨씨이다. 그러나 문도령은 떠나가고, 정수남은 방해하며, 부모도 자청비를 쫓아내므로 혼자 어디론가 떠나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집을 나서 수평이동을 하는 긴 여정의 끝에 저승세계와 만나게 된다. 그리고 저승세계의 할아버지가 지닌 고충을 해결해주고, 하늘에 가서는 그 곳의 큰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런 비범한 능력의 결과 하늘로부터 땅의 기업이 되는 농경신직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sup>9)</sup>

9) 문무병 ‘앞의 글’ 중 농경신 신화로 전하는 ‘토산리 일뤼당본풀이’이야기는 소천국의 칠자(七子)가 불효하여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곳에서 용왕의 삼녀와 결혼하지만 과다한 식성으로 쫓겨나자 삼녀가 남편을 찾아 한라산으로 오르던 중 목이 말라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과 돼지털을 그을려 먹고 남편에게 쫓겨난다. 남편은 한라산 오백장군의 딸을 첩으로 삼아 지내는데 첩은 본처를 찾아나서 마라도에서 데려온다. 마라도에 갔을 때 본처는 일곱 자식을 기르고 있었다. 돌아와 본처는 눈병 걸린 시어미, 아이의 병을 고치고 처첩은 일뤼당신이 되고 부자는



이런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그 내용 속에 여러 지방에서 유래되는 여러 신화소들이 중첩되어 있으며, 줄거리가 풍부하고 사건이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야기 배경에 있어서도 자청비의 공간 이동이 수평과 수직의 복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속신화의 여신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들 즉, 부모로부터 쫓겨나는 것,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수를 구하는 것, 하늘로 올라 남성으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것들이 자청비에게 그대로 일어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녹아있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신화수용과 그 적층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3. 이야기에 들어온 화소

‘자청비와 문도령’이야기의 는 사건의 변화와 전환이 많은 신화이다. 서사적 관점에서 본 ‘자청비와 문도령’이야기는 사건의 변화가 풍부하고 전개가 극적이다. 공간을 이동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사건들로 풍부한 이야기를 전개하여 흥미로운 모험극을 연상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 전개와 화소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다른 내륙의 신화의 이야기가 수용되고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신화들 간의 전후관계나 영향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증명하기 어렵지만 구전으로 전승된 이야기들이 풍부함과 치밀함을 지닌다면 후대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건과 구성이 풍부하고 치밀할수록, 다른 신화의 흥미로운 사건들이 다양하게 등장할수록 앞선 신화를 수용하고 영향을 받은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론에 근거하여 ‘자청비와 문도령’이야기의 화소와 다른 신화의 화소를 전개하여 비교한 뒤 화소의 답음을 찾아 이 이야기의 다층적 수용 양상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본향당신이 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남편은 문도령을, 자청비는 본처를 정수남은 첩의 성격을 닮아 있다. 농경신이 되는 자청비처럼 본처는 생육과 번식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3. 1. 당금애기와 제석신의 여정

창세신화소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세상에 아기를 불귀 주는 삼불신이 되는 내력을 전개한 당금애기 이야기<sup>10)</sup>이다. 제주도의 무속신화 초공, 이공, 삼공본풀이이야기는 전국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로 섬 제주도만이 아니라 내륙에서도 전승하는 신화로 지역성에 관계없이 이야기는 전승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제주도에서 초공본풀이로 연회되는 서사적 내용과 같은 신을 다룬 ‘당금애기’ 이야기 분석을 통해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수용된 화소의 내용을 살펴 화소의 답음이 어떤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창세신화소를 담고 있는 ‘당금애기’ 이야기는 곳거리 ‘초공본풀이’ 이외 ‘삼태자풀이’, ‘쟁긔’, ‘창세가’, ‘제석본풀이’ 등의 지역 이본들이 전한다. 여기서는 강릉본 구술신화를 바탕으로 서사구조를 전개한다.

- (1)하늘의 석가(삼한)시준님이 천상궁에서 개비랑국 매화부인의 옆구리로 태어나다.
- (2)세상에 자손을 점지하고 명과 복을 주고자 세상에 내려오다.
- (3)서천서역국의 ‘당금애기’ 집에 재미(齎米)동냥을 온다.
- (4)당금애기는 부모와 아홉 오라버니가 천하공상, 지하공사, 말글, 천기, 바둑공사를 가서 곳간 문을 열 수 없다고 시주를 거절한다.
- (5)겹겹이 잠긴 곳간 문을 연 시준님은 당금애기씨 쌀을 일부러 밀 빠진 자루로 받아 저로 도로 담아 달라고 하며 밤에 이른다.
- (6)시준님은 잠자리를 청하며 당금애기가 원래 중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주임을 말하고 둔갑술을 부려 취한 후 아침에 박씨 세 낱을 주고 떠난다.
- (7)삼태자를 뵈 당금애기를 집으로 돌아온 부모와 오라버니가 보고 양반의 수처로 여겨 죽이고자함
- (8) 당금애기를 작두로 쳐도 죽지 않자 뒷산 돌함 속에 가두어버림
- (9)당금애기가 삼태자를 낳자 청학백학이 돌봄

10) 전국 각 지방에서 창세 신화는 ‘쟁긔’, ‘베포도엮침’, ‘초감제’ 등의 이름으로 구전되었으며, 그 내용에 이어 삼불신앙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당금애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지방에 따라 제석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준풀이’, ‘세존풀이’, ‘제석본풀이’, ‘시석풀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 (10)당금애기의 어머니가 당금애기와 삼태자를 데리고 집으로 감
- (11)삼태자가 총명하게 자라자 부친의 내력을 물음
- (12)박씨 세 날을 심어 당금애기를 모시고 금강산 절로 부친을 찾아감
- (13)종이버선에 물 안 묻히기, 회친 붕어 살리기, 짚 닭으로 산 닭 만들기, 피섞기 시험을 거쳐 친자를 확인함
- (14)삼태자에게 각산의 산신령, 부처님, 미륵님의 신직을 주고 당금애기는 자식을 불려주는 삼신 할머니의 신직을 줌<sup>11)</sup>

위 화소에서 짚은 부분을 중심으로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수용된 화소를 살펴 사건의 유사성과 서사성이 함축하는 의미와 기능을 견주어 본다.

창세신화로 시작되는 ‘당금애기’ 이야기에서 (2), (3)의 마디는 처음 석가시준님이 천상궁에서 내려와 서천서역국의 ‘당금애기’에게 가는 부분이다. 이는 ④의 마디인 문도령이 옥황에서 내려와 주청당으로 공부하러 가는 중 자청비를 만나는 경우처럼 위에서 하강한 남신이 밑에 있는 여신과의 만남을 얻게 되는 내용으로 신직 만남에서 남신이 천상에서 아래로 공간을 이동하는 화소와 그 두 신이 위치하는 신직 공간이 닮아 있다.

물론 그 내막을 보면 차이가 있다. 만남과 그 만남의 공간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당금애기와 시준님의 만남은 시준님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시준님은 혼자 있는 집안에 남자를 들일 수 없다는 당금애기의 거부를 물리치고 시준님의 강제적이고 주도적인 의사에 의해 만나게 된다. 따라서 그 만남의 장소도 당금애기의 집안에까지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은 자청비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신의 부모가 부재 중에 집안에서 이루어진 당금애기 이야기와 달리 자청비는 집 밖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허락을 얻게 된다. 이런 차이 속에서도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 남녀의 만남이 부모의 생각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지위를 능가하는 운명적 힘이 이

11)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강릉에 사는 박용녀 구연 ‘당고마기 노래’로 이 신화는 미륵님과 석가님이 인세차지경쟁을 하고 속임수로 석가님이 이겨 세상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으나 여기서는 당금애기 이야기 부분만 단락으로 뽑았다.

들의 미래를 이끌어 감을 보여준다. 이들의 만남은 신화적 구조에서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임을 상징한다. ‘당금애기’ 이야기는 매우 봉건적이고 부모지배적인 내륙적인 민중의 삶이 신화에 반영된 것에 비해,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여성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제주도 민중의 삶이 투영되어 있다. 다른 내륙신화에 나타난 결혼제도와 달리 제주도에서는 처혼제, 일시적 처혼제의 혼인담을 보이는 신화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sup>12)</sup>

6)의 마디는 당금애기와 하룻밤 잠자리를 한 뒤 기약 없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 버리는 시준님의 행동은 ⑦의 내용과 연관된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삼 년 글공부를 같이 한 후 자청비가 여자임을 밝히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혼인을 한다. 그렇게 삼 개월을 지낸 문도령은 아무런 약속 없이 역시 귀천하고 만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7)에서는 당금애기가 부모 허락 없이 남자와 자고 아기를 배자 부모의 미움을 받고 쫓겨난다. ⑪의 마디를 살펴보면 자청비가 정수남을 죽이고 미움을 받게 되어 쫓겨나는 결과가 닮은 것으로 가족과의 분리과정을 겪게 된다. 당금애기가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것에 반해 자청비는 집안의 재산이 되는 종의 죽음이 쫓겨나는 원인이다. 그러나 집과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되어 고행을 겪는 과정은 신이 되는 중요한 화소이다. 이 내용은 ‘자청비’ 이야기의 화소에서 ‘혼인담’의 내용으로 신들이나 영웅들이 더 큰 능력을 위해 집과 기존세상의 분리를 겪는 과정에 해당한다.

혼인을 통해 분리된 당금애기는 떠나간 남편대신 삼태자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삼태자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12)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66쪽-176쪽 제주도 신화에 나타나는 혼인 유형을 보면 외혼제(집단 성원과의 혼인을 금하는 제도로 씨족금혼제)를 원칙으로 모처혼(母處婚)제, 부처혼(父處婚)제, 일시적 모처혼제가 있다. 모처혼제란 처처혼(妻處婚)이라고도 하는데 결혼하여 남편이 아내의 집에 일생을 사는 것으로 탐라신화인 ‘삼성신화’에서 보인다 부처혼은 夫處婚이라고도 하는데 결혼하여 아내가 남편의 집에 일생을 사는 것인데 구좌면세화리 당신화에 전개된다. 일시적 모처혼제는 결혼하여 일시적으로 아내의 집에 살다가 남편의 집으로 가는 것으로 송당계당신화(제주도 신당의 원조)에서 나타난다. 이런 혼인유형 중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일시적 모처혼제의 유형에 속한 경우이다.

다. (11), (12)의 마디는 삼태자와 더불어 당금애기가 아버지이자 남편을 찾아 천상(금강산)으로 오르는 화소로 상승적 공간 이동의 화소를 지닌다. 신화적이지만 신능이 부재한 땅의 공간 서천서역국을 떠나 상승공간으로 이동함으로써 삼태자와 당금애기의 신직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이와 같은 유사모티프는 자청비 이야기 ⑫, ⑬의 화소로, 천상으로 올라가 문도령을 만나고 신직을 얻기 위해 상승적 공간 이동을 겪는 것과 연결된다. '자청비'가 하늘에서 겪는 삶의 과정이다. 당금애기는 삼태자와 더불어 하늘에 올라 그곳에서 삼태자가 제석신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신직을 받게 된다. 이것은 자청비가 하늘에서 수난을 겪으며 혹심한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과 다르다. '자청비'가 하늘에서도 고난을 통해 신적 능력을 시험받는 것에 비해, 당금애기는 하늘에서 목적을 이루게 된다. 당금애기 이야기에서는 하늘에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자청비' 이야기는 그곳에서 신직을 얻는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하강하게 되고 다시 땅에서 목적을 향한 사건이 벌어진다.

두 이야기의 공간은 남신과 여신이 각각 닮은 이동경로를 보여준다. 먼저 여신은 땅에서 혼인하고 남신 찾아 하늘로 이동한 뒤 신직을 바로 얻거나 신직을 얻기 위한 공을 세운다. 그리고 남신은 하늘에서 내려와 여신과 혼인한 뒤 하늘로 혼자 오른다. 둘 다 수직적 공간 이동이 신화 주인공의 지위와 능력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sup>13)</sup> 수평적인 공간이동에 따른 지위와 능력의 변화를 보이는 '바리데기' 이야기와 대비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당금애기' 이야기와 '자청비' 이야기가 서로 닮은 화소를 지니는 유사구조는 무속신화가 지니는 닮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무속신화의 발생과 전승에서 그들의 영향관계를 드러내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부분적 화소는 매우 닮아 있지만, 여성 주인공이 지니는 주체적인 선택과 행동, 신직을 얻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능력, 인물이 겪는 다양한 고난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등 여성인물의 성격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차이는 두 신화의 본질을 구성하므로 당연하며, 전혀 다른 신의 내력을 이야기로 풀었음에

13) 이영지 "당금애기 이야기의 공간" 배달말 29집

도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 속에 공간적 이동 과정, 만남과 이별의 모티프, 시험을 받는 내용들이 ‘당금애기’ 이야기의 화소를 되풀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 3. 2. 오구신의 능력

무조신의 근원을 담고 있는 신화에서 나온 오구신은 죽은 자의 넋을 부르는 오구굿의 주신이다. 오구신의 이야기 속 이름은 ‘바리데기’<sup>14)</sup>이다. 전국으로 널리 전하는 무당의 점지와 굿의 중심 신으로 저승세계에서 부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약을 구해오던 중 만난 귀신들을 구원하고자 무신이 된 여인이다. 바리데기는 죽은 영혼을 인도하는 오구신이 되어 지옥이나 저승에서 신음하는 귀신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신능을 갖기까지 무수하게 겪는 시험과 고난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벌어진다. ‘바리데기’이야기에서 ‘자청비와 문도령’이야기의 화소와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 서사 내용을 전개해 보기로 한다.

- (1) 삼나라 어비대왕이 길대부인과 혼례날을 정하면서 문복을 듣지 않고 한 해 빨리 혼례를 올린다.
- (2) 문복의 예언대로 딸만 여섯을 낳고 일곱째도 딸을 낳자 옥함에 넣어 황천강에 버리면서 이름을 바리공주라고 지어준다.
- (3) 세상으로 나오던 석가세존이 바리공주를 발견하고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기르게 한다.
- (4) 삼나라에서는 점을 치자 대왕내외가 병이 들어 한 날 한 시에 죽게 되니 바리공주를 찾아 삼신산 불사약과 무장승의 약수를 구해야 한다고 문복을 한다.
- (5) 삼나라 신하가 바리공주를 찾아와 공주의 출생을 확인시킨 후 삼나라 부모에게 갈 것을 청함
- (6) 삼나라 부모를 만난 후 복중 은혜를 갚고자 약을 찾아 떠나기로 한다.
- (7) 지옥에서 신음하는 귀신들을 지나 무장승을 찾아 9년 봉사와 일곱 아들을 낳아 준 뒤 불사약과 약수를 얻는다.

14) 김태곤 편저,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9. 이는 서울 경기 지방의 부름말이며, 채록된 지방에 따라 ‘비리데기’(안동), 베리데기(경남)로 불리며, 강원지방은 오구굿을 하는 이가 말명 할머니로 등장한다.

- (8) 무장승과 일곱 아들이 함께 삼나라로 가는 길에 바리공주는 갖가지 영혼을 만난다.  
(9) **삼나라에 오자 이미 죽어 상여로 실려 가는 대왕대비를 세워 살, 뼈, 피살이 약수와 개안수를 넣어 생명을 구함**  
(10) 바리공주는 무장승, 바리공덕 할아버지, 할멈, 일곱 아들에게 산신제와 평토제, 노제, 저승별비, 저승의 십대왕이 되게 해달라고 함.  
(11) 바리공주 자신은 무신이 되어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일을 마련함.<sup>15)</sup>

무조신이 되는 이야기도 날 때부터 결핍된 사람으로 태어나 버림을 당하는 수난으로 시작된다. 당금애기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수난의 까닭이 아니지만 바리데기나 자청비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가 원한 바가 아니며, 그로 인해 수난을 겪는 것이다.

두 이야기의 서사적 겹침은 ‘바리데기’ 이야기에서 (7), (9)마디에서 두드러진다.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영향을 따져볼 화소는 두 마디로 바리데기가 죽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인간세상이 아닌 곳에서 무장승의 요구를 들어주고 약과 약수를 얻는 것과, 그 약으로 삼나라에 있는 아버지를 살리는 내용이다. 이 화소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나타나는 ⑩, ⑪의 화소와 연결된다. 여기서 바리데기는 삼나라로 표현되는 이승과 바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멈이 등장하는 중간세계를 거쳐, 무장승의 나라로 상징되는 저승을 오가며 생명을 구해 낸다. 자신을 버린 대왕대비를 살리기 위해 온갖 지옥을 지나고 무장승에게 구 년 봉사에 일곱 자식을 낳아준 후 목숨을 살리는 약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자청비가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땅과 하늘의 중간 쫘 되는 사라대왕의 나라에 가서 불길하게 우는 새를 없애주고 마당에 장점을 묻는 위험을 거쳐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의 화소로 보인다. 바리데기의 내용이 이승과 저승의 수평적 공간으로 움직인다면, 자청비는 문도령과의 관계로 인해 하늘과 땅이라는 수직적 공간으로 움직인다.<sup>16)</sup> 그러나 정수남을 살리기 위

15) 김태곤, 앞의 책 서울과 경기 지역에 전승하는 진오귀굿 말미에 구연하는 무가 ‘바리공주’의 내용 중심으로 화소를 전개하였다

16) ‘당금애기’와 ‘바리데기’ 이야기는 대조적인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각각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직을 지니는 것, 수직과 수평적 공간 이동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 이승과 저승으로 돌아가는 것 등 여러 면이 대조된다.

해 자청비가 이동한 공간은 수평적이다. 정수남이 죽은 공간과 정수남을 살리는 환생꽃이 있는 공간은 분명 차원이 다른 세상이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리데기가 간 곳이 저승이었던 것처럼 자청비가 찾아간 곳도 자청비가 살던 공간과 다른 장소를 상징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길을 달리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이승이 아니다. 결국 땅자의 생명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생명수를 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명수로 새남살이를 시키는 이야기는 동일하게 겹쳐진다.<sup>17)</sup>

그런데 바리데기가 살려낸 대상은 부모인 ‘어비대왕과 길대부인’ 인데, 자청비가 살려낸 대상은 ‘정수남’이다. 바리데기는 자신을 버린 부모였지만 낳아 준 은덕을 갚기 위해 생명수를 찾아 나선 것이다. 그에 비해 자청비는 부모의 종을 죽인 미움을 씻어내고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집의 종인 정수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바리데기는 생명수를 구해 부모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자청비는 정수남을 살려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수남은 문도령과 더불어 자청비의 운명을 상징하는 한 부분이다.

두 여신이 저승을 넘나들며 생명수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그들이 완성해야할 신직은 다르다. 자청비의 신직은 저승과 이승의 삶을 이어주고 땅자의 혼을 인도하는 오구신의 능력을 주관하는 일이 아니었으므로 정수남을 살려내지만 서사는 끝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고난을 통해 그에게 부여된 본령의 신능을 구해야 하므로 부모로부터 쫓겨나는 사건이 이어진다. 주체적 여신의 지위에서는 바리데기가 당금애기보다 앞서지만 자청비는 바리데기보다 더욱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발전해간다. 자청비의 ‘땅수난담’이야기는 바리데기의 오구신적인 능력을 한 걸음 더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

### 3. 3. 감은장 애기의 주체적 여성상

이 신화는 우리나라에 넓게 퍼져 전하는 이야기로 구전이나 기록된 설화에

17) 새남살이는 새남곳에서 나온 말을 적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새남 곧 새로 태어남을 뜻한다. 죽음에서 삶으로 거듭 난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감은장 애기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구전설화 계열로 ‘여인발복 설화<sup>18)</sup>나 ‘내복에 산다’계 설화<sup>19)</sup>가 있으며, 구전무가로서 제주도곳에서 ‘삼공본풀이’ 그리고 기록된 설화에는 ‘서동설화’(무왕과 선화공주), ‘온달과 평강공주’형<sup>20)</sup> 이야기가 있어 각기 변이 전승된 내용으로 전해온다. 이 설화는 효녀 심청이야기가 개안화소를 공통으로 지니면서 또 하나의 변이형을 낳은 관계로 설명되고 있다.<sup>21)</sup> 감은장의 주장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분복대로 타고난 복을 따를 뿐이라고 말함으로써 변할 수 없는 운명의 이치를 말한다. 이런 근원적 서사구조는 심청이야기에 와서 신화적 논리에서 벗어나 유교 사회적 가치와 덕을 표면에 내세워 희생적인 자식의 효 이야기로 변형된 것이다.<sup>22)</sup> 본래 감은장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여성이 복이 있어 친정과 시댁에 금을 보내고 그로써 복을 이루는 내용이 핵을 이룬다. 여성이 가정의 복을 이루는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딸 또는 며느리의 신분으로 등장하는 이들 주인공들 중, 딸의 이야기는 부모에게 ‘내 복에 산다’고 하였고, 며느리의 이야기는 그런 주장 없이 신분적 이유로 쫓겨나 시댁이 곤경에 처함으로써 며느리의 진가를 발휘하여 ‘여인 발복’하는 이야기라 하였다. 앞의 ‘당금애기’나 ‘오구신 이야기와 달리 이 신화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본보다 시대에 따른 새로운 구조의 변이형이 많다. 이 여성인물은 운명적으로 복의 능

18) 김대숙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1988. 이화여대박사논문,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변이형 이야기를 ‘여인 발복’ 설화로 정의하고 하위에 ‘내복에 산다’ 유형, ‘복진 며느리’ 유형, ‘복진 며느리’ 유형으로 나누어 구조를 풀이하고 있다.

19) 현승환 “‘내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박사논문, 1992.

20) ‘삼공본풀이’는 제주도 무가로 전하는 글이며, 『삼국유사』에 전하는 ‘서동 설화 곧 맛등이’, 『삼국사기』에 전하는 ‘온달과 평강공주, 그리고 각 지역마다 금으로 복을 얻는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21)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이 책에서 논의 되어 온 주제로 최운식, 현승환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22) 동해안에서 어부들이 낚을 때 고기 많이 잡고 눈병을 없게 해달라고 ‘심청’ 무가를 부른다. 제의의 신화적 속성과 기능이 함께 존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심청전과 닮았다. 심청이 복을 얻는 장소가 용궁으로 부귀와 개명의 운명을 얻어 나온 공간이다.

력을 부여받았지만 과정을 거친 뒤 신적 능력을 가지는 화소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화성보다 민담적 성격이 강한 인물이다.

여기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를 대표하는 감은장 애기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감은장 애기’에 나타난 이야기 마디를 풀어서 ‘감은장애기’와 ‘자청비’ 이야기의 신화적 구조와 의미의 연계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한림좌수와 너설부인은 거지로 만나 연분을 맺는다.
- (2) 부부는 셋째 딸을 낳고 부자가 된다.
- (3) **부부는 세 딸에게 누구 덕에 사는가 묻자 셋째 딸이 ‘내복에 산다’고 해 쫓겨난다.**
- (4) 부부의 물음에 거짓으로 고한 두 딸을 감은장애기가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만든다.
- (5) 감은장애기를 쫓아낸 부부도 눈이 멀고 만다.
- (6) 세 번째 마 케는 총각을 통해 알게 된 할머니 집에서 밤을 지내게 된다.
- (7) **할머니의 아들 세 총각 중 착한 셋째 아들과 혼인을 한다.**
- (8) 마 캐러 간 막내아들이 황금을 가득 담아 와서 막내와 감은장 부부는 거부가 된다.
- (9) 감은장이 늙어 걸식을 할 부모를 생각하며 걸인잔치를 베풀다.
- (10) 눈이 먼 부모와 감은장 애기가 상봉하게 되자 놀란 부모가 눈을 뜬다.
- (11) **감은장 애기는 부모에게 부자로 살게 된 것은 자신이 지닌 전생의 복 때문이라고 말한다.**
- (모든 인생살이는 타고난 인연 곧 운명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 (12) 부모는 감은장애기를 쫓아낸 일을 후회하고 모두 잘 살았다.<sup>23)</sup>

‘감은장애기’는 운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그늘이나 의사로부터 뚜렷이 독립되어 있다. 부모에게 의존하여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내 복에 산다’는 말로 대변하고 있다. 이것은 ‘자청비’가 자신의 운명을 자기 능력에 기대어 개척해가는 인물형으로 나타나는 것에 견줄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은 날 때부터 자신이 지니고 태어난 것으로 부모가 베푸는 덕에 의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감은장애기가 자신의 운명을 찾아 스스로 길을 떠나듯 자청비도 자신에게 부여된 운명적 신직을 스스로 찾아 나선 것이다. 시준님과 삼태자의 힘을 입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당금애기가

23)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226-228 쪽

신직을 얻는 것과 다르다.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서 ⑤와 같이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났을 때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그를 따라 나서는가 하면, ⑦처럼 자청비는 자신이 여자인 줄 모르는 문도령에게 여자임을 밝히고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등 진취적인 자세를 보인다. 자청비는 자신의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고 행동하며 선택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청비의 성격은 감은장 애기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과 같이 부모가 복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내 복에 산다.’라고 말한다.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생각을 숨기거나 둘러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같은 운명에 대한 뚜렷한 자기 인식은 (7)처럼 남편을 선택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남편을 만나 금을 얻어 부자가 된 것 역시 감은장의 운명이 가져다 준 결과로 받아들인다. (11)에 와서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또 다시 이렇게 부를 누리며 복을 얻게 된 근원이 자신이 하늘로 받은 운명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운명적 주체성은 자청비에게서도 고스란히 발견된다. 자청비는 문도령을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따라 글공부를 할 결심을 하는가 하면 그를 자신의 남편으로 여겨 인연을 맺고 직접 집으로 데려와 부모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린다. 또한 정수남이 자청비를 곤경에 빠트리려 할 때 그를 죽여 스스로 어려움에서 벗어난다. 땅에서는 물론 하늘에서도 자청비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보인다. 운명을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끌어가는 모습이 두 여신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감은장 애기가 지닌 능력은 그의 출생에서부터 비롯된다. 가난한 거지로 만난 한림좌수와 너실부인은 감은장 애기를 낳고 부자가 된다. 감은장 애기를 쫓아낸 뒤 바로 거지가 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마 케는 아들을 둔 할머니 집에 가자 다시 그 집이 부자가 된다. 제주도 서사무가 ‘삼공본풀이’로 불리는 이 신화에서 이야기의 주체인 감은장 애기는 뚜렷한 신직을 드러내지 않는다. 앞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쫓아낸 두 언니를 지네와 말뚝버섯으로 만든 점으로 보아 감은장은 보통 인간의 능력 위에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끝에 가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날 뿐, 구체적 신직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이야기 흐름 속에 감은장의 능력은 부를 쥐고 다닌다는 점이다. 이름 붙이

자면 부신(富神)의 기능을 수행한다고도 할 수 있다<sup>24)</sup> 사람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그가 지니고 태어난 운명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여자들이 쥐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런 점은 자청비가 뚜렷한 신직을 지닌 여신으로 결론짓는 내용과 차이를 보이지만 여자가 능력의 근원이 되는 점에서 일치한다.

#### 4. 인물로 본 신화의 적층적 성격과 의의

농경신으로서 중세경을 다스리는 ‘자청비’는 하늘신 상제경의 ‘문도령, 땅 밑으로 상징되는 하제경의 정수남과 더불어 농경신화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세 층을 상징하는 이 인물들 역시 여러 신화적 인물들과 닮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건에 부딪혀 공간을 이동하는 경로나 행동들 또한 닮았다. 이들 인물들을 분석하여 이들 속에 혼재된 신화적 성격소를 찾아내기로 한다. 신화의 유사성은 인간의 상상력이 지닌 보편성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구성과 사건이 복잡하고 치밀하며 모티프를 부여하는 화소가 닮은 것은 후대신화가 앞서 나온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자청비와 문도령’이야기의 서사적 적층 양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등장인물들이 지닌 면모를 분석하여 인물이 지닌 특성과 성격의 적층적 양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4. 1. 자청비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농사신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로 기원 창세신화의 한 가지이다. 이 신화의 화소 중, 자청비와 문도령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 하늘신의 독자적인 귀천행위, 재결합, 하늘신이 내리는 신직부여와 같은 내용

24) 장주근 「한국의 신화」, 성문각, 1961. 241 쪽

은 창세신화 ‘당금애기’ 이야기의 화소들과 유사하여 그 영향관계의 상관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청비는 당금애기의 수동적인 신의 이미지와 달리 능동적이고 운명개척적인 모습을 지닌다. 이런 점이 자청비만의 신적 특징을 만들어낸다. 자청비는 당금애기와 달리 인간생명을 잉태하지 못하였고, 바리데기와 달리 망자의 넋을 인도하지도 못했으며, 감은장애기와 달리 돈복을 이끌고 다니지도 못했다. 그 대신 씨앗을 통해 식물을 싹틔웠고, 산자를 위한 먹을 것을 생산했으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식량을 만들어낸 것이다. 자청비가 신직을 행사하는 내용과 장소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별성을 지닌 자청비의 성격과 더불어 창세신화의 인물이 지닌 공통적인 성격 또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자청비의 인물 특성 속에 들어온 적층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자청비가 행동하는 공간의 이동 경로를 비교할 수 있다. 자청비가 태어난 공간은 김진국 대감집이다. 세속적인 집안의 자손으로 그려진 듯하나 제주도 무속자료에 실린 ‘세경본풀이’<sup>25)</sup>가 서두에 자청비의 하르방은 천왕제석(천황제석)이고, 할망은 지왕제석으로 나온다. 이들은 세속적인 인간이 아닌 신적 존재임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하늘과 땅신의 결합으로 김진국대감이 나고 자지국부인과 만나 자청비가 태어난다. 이런 탄생사를 보면 자청비가 살고 있는 곳도 신적 능력이 부여된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 세 공간을 모두 세속공간과 다른 곳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자청비의 이동 경로는 당금애기, 바리데기, 감은장 세 여신들의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자청비가 문도령을 찾아 부모 나라인 김진국 대감댁에서 옥황으로 오르고 그곳에서 문도령과 헤어져 농경신 신직을 받고 부모 나라에 내려온다. 이 같은 수직의 공간이동에 의해 자청비는 신직을 부여받게 된다. 이러한 수직공간이동에 따른 신직의 창출은 당금애기가 삼불신<sup>26)</sup>이 된 것에서 연결된다.

둘째, 자청비가 옥황으로 오르기까지 여러 난관을 만나는데 정수남을 죽인

25)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신구문화사, 1980, 315쪽

26) 아이 불귀주는 신 곧 삼신

별로 부모로부터 쫓겨나 겪는 고행길은 수평으로 벌어진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정수남을 살릴 생명꽃을 구하려고 떠나는 길은 정처 없는 나그네 길과 같다. 김진국이 사는 나라 옆으로 벌어진 김정신의 나라로 찾아 들어간다. 그곳에서 요망한 새를 잡아 주고 화초밭에서 생명꽃을 구해서 나온다. 공간은 옆으로 이어진 나그네 길이지만 시간은 멈추어진 나라로의 이동인데, 이곳에서 생명꽃을 구해 정수남을 구하게 된다. 자청비가 김정신의 나라에서 생명꽃을 구하는 시간의 흐름은 김진국 나라에서 멈추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도령이 천상에서 궁녀가 권한 독술을 마시고 죽고 만다. 이 때 서천서역으로 들어가 환생꽃을 따서 죽은 낭군을 살리고 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청비는 서천서역국으로 가는데 이곳은 수평적 공간 이동과 비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을 지닌 장소이다. 이같은 오구신의 능력은 자주 되풀이된다. 이런 자청비의 모습은 바리데기가 무조신이 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셋째, 자청비가 문도령과 결혼을 하고 그로 농경신이 될 문을 열게 되는 동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동하는 공간으로 옥황이나 김정신의 나라와 같은 신적 경계가 다른 차원의 장소로 가는 변화는 없다. 자청비가 팔래터에 갔을 때 문도령을 우연히 만나 스스로 자신의 배필로 결정하고 결혼하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과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자청비의 이런 행동은 감은장애기가 집을 떠나 숲구이 총각을 만나 결혼을 하고 복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와 연결된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만나 앞일을 결정하고 결혼하는 공간은 자청비의 생활영역으로 감은장 애기가 숲구이 총각을 남편으로 정하고 결혼하는 공간적 의미와 상통한다.

이처럼 자청비의 성격적 특징은 공간적 이동이 지닌 속뜻에서도 다른 무속 신화에서 보여준 여신들의 공간적 의미가 다층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난다.

그 외 능력이 지녔기 때문에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자기 지위를 발견해가는 서사성, 타고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택하고 해결해가는 여성 주체적 발복의식,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의 시간을 이어주는 초월성, 신직을 지닌 여신이 되는 것 등 여러 모습에서 다른 신화 속 여신들이 지닌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세상을 창조한 신화와 달리 농경신의

발생을 풀이한 신화지만 창세신화의 당금애기의 기능과 바리데기의 능력, 가문장 애기의 주체적인 운명 수용의식들이 자청비의 신화적 성격에 영향을 끼쳐 반영되어있다. 이로써 자청비는 풍부하고 흥미로운 사건의 중심인물이 되어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배경을 이동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4. 2. 문도령

문도령은 천신의 아들로 그 역시 하늘신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문도령의 의도는 글공부를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하늘신이 땅에 내려와 글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따져보면 그냥 글공부가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땅 세상을 다스려볼 요량으로 그 공부를 하러 온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 그를 알아본 것은 물론 자청비다. 그 또한 자청비를 통해 세상을 알고자 했기에 자청비와 혼인까지 했으나 결국 땅세상을 떠나 하늘로 돌아온다. 문도령은 아무 연응도 없이 하늘로 온 듯 보이지만 그는 자청비에게 신직의 길을 열어주고 온 것이다. 이런 문도령의 모습에 여러 신들의 모습이 겹친다.

먼저 ‘당금애기’ 이야기에서 ‘제석신’의 성격과 닮았다. 하늘에서 내려와 당금애기를 건드려 놓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버림으로써 당금애기에게 신직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다. 문도령의 지위와 능력이 변한 것이 없듯이 제석신 역시 인간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온 뒤 변한 것은 없다. 여기 두 남신의 화소와 기능이 영향관계를 추론할 수 있게 유사하다.

이들의 닮음은 공간이동의 특징에서 잘 보여준다. 옥황 곧 하늘에서 내려와 자청비를 만나 인연을 맺은 후 박씨를 주고 다시 승천하는 서사성은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제석신이 삼태자과 당금애기에게 신직을 내리는 옥황금 신이라면 문도령은 옥황으로부터 상세경을 부여받는 자청비와 같은 계층의 존재가 된다. 그 지위에 있어 문도령은 시준님께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곳, 기능에서 밀접한 영향관계를 드러낸다.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서 자청비가 하늘에서 공을 세워 그 덕으로 세상의 농경권을 얻어 세상에 내려올 때 문도령을 거느리고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 문도령이 자청비 덕을 입고 하강하는 셈

이다.

자청비가 천제왕 백제(百子)왕 앞에 등장하여 “오곡 열두시만국(五穀十二新萬國)이나 내여 줍서”

시만국을 내여주니 문도령 거느리고 칠월 열나흘날 인간에 내려사 그때 내온 법으로 칠월 열나흘 백중살이(百中)가 돼옵네다.”<sup>27)</sup>

문도령은 ‘감은장애기’이야기의 솟구어 총각 모습을 드러낸다. 공간적 지위는 제석신의 속성을 닮았으나 실질적 능력은 ‘감은장애기’ 이야기의 솟구어 총각이 감은장 애기의 복으로 부를 얻게 되는 것과 닮았다. 문도령은 자청비와 함께 ‘오곡열두시만국’을 마련하고 상세경과 중세경을 다스리는 신직을 나눠 갖는다. 자청비가 인간세에 내려왔을 때 정수남이 그간의 부모님 돌아가신 소식을 자청비에게 전하면서 그간 굶어 배가 고프니 ‘아웁장남’ 거느린 밭에가 점심을 얻어먹으려 하였다. 그 때 고약한 ‘오웁장남’<sup>28)</sup>은 욕을 하며 쫓아낸다. 그러자 자청비 그 논밭에 대홍련을 지우고 만다. 이런 능력은 주로 자청비가 행사하는 것으로 문도령의 상세경 지위는 상징적으로 윗길이나 능력이 없다. 결국 문도령은 공간적 속성에서는 ‘당금애기’ 이야기의 제석신의 양상을, 복을 지닌 여인의 남편이 된 점에서는 ‘감은장 애기’의 솟구어 총각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셈이다.

문도령은 ‘바리데기’ 이야기의 무장승의 화소를 지니고 있다. 천상에서 자청비가 농경신의 신직을 얻어 땅으로 내려왔을 때 그는 상세경의 신직을 부여받아 자청비와 함께 따라온다.<sup>29)</sup> 남신이 아내의 땅으로 따라온 점은 ‘바리데기’ 이야기에서 무장승이 바리데기를 따라 어비대왕의 나라와 온 것과 같은 화소

27) 현용준, 앞의 책, 362쪽.

28) 아웁 사람의 머슴

29)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 사전 상」, 신구문화사, 1980, 362쪽. ‘문도령을 거느리고 칠월열나흘날 인간에 내려사, 그 때 내온 법으로 칠월 열나흘 백중살이가 돼옵네다.’



와 기능이다.

#### 4. 3. 정수남

정수남은 자청비, 문도령과 같은 시에 같은 운명을 타고 난 대상이지만 공간적으로 인간세상으로 묘사된 땅을 떠난 적이 없다. 하세경을 다스리는 직을 얻는 정수남은 세속에서 마불림<sup>30)</sup> 제사상을 받아먹고 목장의 목동을 마련하는 목축신으로서의 직위를 지니게 된다. 목축신은 다른 신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으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재생의 과정을 거치는 대상으로 무속신화에서 자주 반복되는 화소적 인물이다. ‘바리데기’ 이야기에서 그의 부모는 이승과 저승의 시험과 고난을 통과한 바리데기가 구해온 생명수로 죽음에서 삶으로 생명을 다시 얻는다. 이는 감은장 이야기에서 감은장 부모가 장님이 되었다 다시 광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탄생과도 공통된 화소로서 정수남에게서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얻는 재생모티프가 반복되고 있다. 것이다. 이런 재생의 역할은 ‘바리데기’ 이야기에서 바리데기의 부모가, ‘감은장애기’ 이야기에서는 감은장의 부모가 암흑에서 다시 눈을 뜨는 것과 상통하는 역할의 인물이다. 자청비의 능력을 실현시키는 대상이자 자청비가 지닌 운명의 한 끈을 지닌 인물로 기능하고 있다.

#### 4. 4. 의의

오랜 세월 구전되던 신화를 두고 전승의 앞뒤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영향을 주고받은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구전은 기록된 이야기와 달리 많은 변형과 습합의 과정을 거쳐 재창조되는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이 논의에서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수용된 다른 신화의 영향을 화소의 유사성과 기능을 통해 살펴보려한 것은 자칫 당연한 이야기

30) 제주도에서 마을 분향당에서 7월에 드리는 당굿으로 마소 번성을 위해 축산신 정수남에게 올리는 제

로 그칠 수도 있다. 입으로 전해오는 신화가 다른 이야기와 습합되거나 차용되면서 유사한 화소를 지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변이형을 지닌 설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무당이라는 신분으로 전승되는 무속신화의 경우 그 전승과정에서 습합하거나 다른 신화소들이 수용되는 폭은 일반 신화에 비해 적다고 본다. 구전되어 전승되었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수용했던 신화이므로 그 원형을 보존하려는 속성이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구전되는 과정에서 습합과 수용으로 생긴 변이는 막지 못한다. 이런 습합과 수용의 양상은 더 근원적인 신화와 후대 차용적인 신화를 변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앞선 신화의 영향을 받아 사건이 더욱 복잡하고 치밀해지며 풍부한 화소들이 유입되게 된다.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도 매우 풍부한 화소와 구조로 짜여져 있으며, 여러 신화의 화소들이 수용되어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농경신의 이야기 속에는 신직을 찾아 헤매는 여신의 여정을 발견하게 되고 남자와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새로운 공간과 삶 속으로 나아가는가 하면, 재생과 부활의 능력을 시험받고 신직의 자격을 검증받기도 한다. 남신으로 하강하여 지상의 여신을 운명으로 점지하기도 하고, 여자를 혼자 두고 하늘로 상승하는가 하면, 여자로 하여금 만남의 끈을 남기고서 운명의 길을 일러주기도 한다. 가족을 잡아먹고 여신을 괴롭히는 가족신이 죽음을 당한 후 부활하기도 하며 육축의 신으로 등극하기도 한다.

이런 화소들을 지니고 있는 신화들은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 전승되는 이야기들이다.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수용된 내용은 여신의 신능이 다른 각각의 신화 속에서 수용된 화소들이며 기능들이다. 화소의 유사성으로 신화의 영향관계를 규정지을 수 없으나, 단순한 사건의 수용이 아니라 의미기능과 연결되어 수용한 것으로 후대의 신화가 앞선 이야기를 적층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유추한다. 신화 중 가장 시대적으로 앞선 이야기는 창세신화로 세상이 열리고 인간이 탄생하는 신들의 발생을 다루고 있다. 창세신화가 탄생의 이야기라면 죽음에 대한 상상력은 저승신화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세상의 삶을 이루는 일들의 근원을 상상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떠돌이 삶에서 정착의 삶을 이루게 되고, 농사신의 내력을 창조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화시대 후기에 나타난 농경사회에서 이런 농경신 이야기가 만들어졌으며, 후대에 창조된 농경신화에 앞선 창세신화나 오구신이야기가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문도령이 자청비를 처음 만나 물을 한 바가지 떠 달라고 할 때 수양버들 한 잎을 띄워주는 이야기와 같은 삽화적인 화소 수용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앞서 살핀 자청비 이야기는 이런 삽화수용이 아니다.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는 자청비의 고난수행과 능력으로 세 신이 탄생하고 있다. 세 신들이 태어날 때 같은 운명을 점지 받아 태어난 점이 상징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하늘의 신인 문도령이 땅의 신인 자청비의 능력으로 신직을 부여받는 것은 여전히 여신의 지위를 우월시하는 과거 모계사회의 모습이 신화적 기능으로 남아있는 흔적이라 하겠다. 곡물씨앗을 하늘에서 가져와 땅에서 재생시키는 모티프는 자청비가 죽은 정수남과 문도령을 살려내는 재생의 능력을 시험받을 때 이미 점지된 신능을 상징하는 장치이다. 농사가 씨앗의 매장을 통해 새 생명을 일궈내듯, 농사신은 죽은 이들을 묻어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문도령은 천상에서 하강하지만, 시준님이 당금애기에게 신직을 주는 것처럼 자청비에게 신직을 부여할 수 있는 신이 못된다. 오히려 자청비의 능력으로 자신의 신직을 부여받는 인물이다. 정수남도 역시 자청비의 능력으로 신직을 부여받는다. 이와 같이 두 남신은 여성에게 의존하여 재탄생하는 존재이다.

제주도는 내륙과 떨어져 모계 중심적 원시 사회적 모습을 지니고 있었으며, 여신의 행동과 태도는 매우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다. 여신이 사회의 중심을 이루던 삶은 내륙의 유교사상이 전해지면서 여성이 남성의 지배를 받고 여성 중심의 사회는 점차 남성중심의 사회로 변하게 된다. 이런 유입된 내륙의 사상은 신화에도 반영되어 남성 중심사회의 삶이 수용되어 여신이 남신으로부터 고통과 버림을 받는 이야기로 변모된다. 자청비는 정수남에게 여성으로 태어난 결핍의 수난을 치욕적으로 당하게 된다. 정수남이 자청비를 희롱하는 것은 자신이 신분으로는 중이지만 성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내륙의 신화에 여성들을 억압적으로 다루는 화소들이 제주신화에 수용되면서 자

청비는 성적 결핍을 극복해야 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원시적 제주도 신화가 지닌 여성의 주체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내륙신화와 달리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흔적이 남아 있다. 이런 제주도 신화의 근원적 모습에 시대가 반영된 새로운 화소가 유입되면서 이 이야기는 남성중심적 가치관인 유교적 화소로 적층 되어온 것이다.<sup>31)</sup>

## 5. 마무리

이 글에서는 무속신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로 전하는 신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나타나는 여러 다른 신화의 영향 관계와 적층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신화와 달리 제주도 지방에 제한되어 전해오는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는 우리나라 대륙에서 구전하는 여러 신화의 화소가 결합되어 있다. 여러 신화의 화소유입으로 인해 신화의 서사적 구성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사건이 연속적으로 전개되며 인물들의 개성과 직능이 선명하게 분화되어 발견하게 된다.

이런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 유입된 여러 신화의 화소 중 이 논의에서는 문헌신화를 배제하고 구전하는 무속신화를 중심으로 닦은 화소와 인물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자청비와 문도령’ 신화의 서사구조를 정리한 후 화소에서 닦은 부분이 많이 발견되는 무속신화 ‘당금애기’ 이야기, ‘바리데기’ 이야기, ‘감은장애기’ 이야기 세 편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화의 유입화소를 발견하게 되었다. 신화의 닦음은 이야기의 유입과 이동에 의해 수용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신화적 상상력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어

31) 당금애기 이야기는 그 근원이 오래된 신화지만 시대적으로 유교사회를 거치면서 유교적 내용이 여성을 억압하는 사건으로 등장한다. 당금애기가 아이를 배자 부모들은 ‘양반네 집에 큰일 났네’라며 집안 망신을 시켰으니 처죽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삼태자가 애비 없는 자식임을 다른 서당군들이 놀리며 벼슬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면 과정에 의한 것이든 여러 신화적 화소가 자청비이야기 속에 유입되어 적층된 현상을 밝혀 보았다.

‘자청비와 문도령’이야기에 들어온 ‘당금애기’ 이야기는 인물의 역할과 신적 공간의 변화에서 같은 구성모티프를 지니고 있다. 당금애기가 있는 곳으로 제석신이 내려와 동침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공간적 이동과 화소의 특징이 문도령이 하강하여 자청비와 만나 혼인하고 동침한 뒤 하늘로 올라간 내용과 일치한다. 제석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당금애기처럼 자청비도 문도령 때문에 정수남을 죽이게 되고 그 이유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독립적 분리의 과정은 영웅적 인물들이 반드시 거치는 화소로서 신화적 일반 모티프로 볼 수 있다.

다음 ‘바리데기’ 이야기의 오구신적 기능이 이 무속신화에 드러나고 있다. ‘당금애기’ 이야기가 공간이동에 따른 서사적 화소의 공통점을 보인다면 ‘바리데기’ 이야기는 현실적 시간을 초월하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넘어서 인간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고통의 과정을 거쳐 초월적 가치를 얻어오는 능력에서 자청비와 일치한다. 자청비 또한 정수남을 살리기 위해 저승의 공간에서 생명 꽃을 가지고 돌아온다.

끝으로 ‘감은장 애기’ 이야기와 공통되는 점은 주인공의 주체적인 행동과 소신으로 운명의 독립성을 보여주었듯이 자청비 역시 자신의 능력과 선택으로 신적 지위와 자격을 얻어낸다는 것이다. 남편의 도움이나 지위로 능력을 부여받는 다른 신화와 달리 감은장 애기나 자청비는 주체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신화적 지위와 위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신들이 중심인물이 되는 무속신화에서는 여신을 중심으로 다층적으로 여러 신화의 화소와 의미가 겹쳐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자청비와 문도령’ 이야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화소와 모티프에서 다른 무속 신화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 구조나 사건이 매우 풍부하고 세련된 서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은 이 신화가 시대적으로 후대에 다양한 신화들의 내용을 받아들여 후기에 마련된 신화가 아닐까 조심스레 화두를 던져둘 수 있을 것이다. 섬이라는 지역적 소외로 제주도 신화가 독창적 모습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다수 신화 속에서 다른 신화와 같은 신의 뿌리를 풀어내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 자청비가 오곡씨앗을 마련할 때 메밀씨를 빼뜨리고 다시 받아오는 바람에 메밀농사를 뒤에 짓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몽신화의 유헌편에서도 나타나는 화소이다. 자청비 이야기도 이처럼 제주도 지역신화와 더불어 대륙의 신화소가 유연성 있게 수용되어 완성된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 강정임(2006), 「세경본풀이의 전승 양상 및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교원대석사  
국어국문학회(1998), 『민요·무가·탈춤 연구』, 태학사.  
김대숙(1989), 「여인발복 설화의 연구」, 이화여대박사논문  
김태곤(1989), 『한국무속총서Ⅶ-한국의 무속 신화』, 집문당.  
김태곤(1968), 『황천무가연구제』, 창우사.  
김헌선(1994),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김화경(2002), 「한국설화의 연구」, 민족문화총서12, 영남대출판부.  
문무병(1993), 「제주도 당신앙 연구」, 제주대 박사논문 .  
이영지(2003), 「당금애기 이야기의 공간」, 배달말 29집 .  
임치균(1990), 「제석본풀이 일고찰」, 홍익어문 제 9집.  
장덕순, 서대석(1970), 「제석본풀이」, 동아문화 9,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장주근(1961), 『한국의 신화』, 성문각.  
조동일(1989),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조현설(2006), 『우리 신화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조흥윤(1986), 『한국의 무』, 정음사.  
현경준(1980), 『제주도 무속자료 사진 -상, 하-』, 신구문화사.  
현승환(1992), 「내복에 산다'계 설화 연구」, 제주대박사논문.  
현용준(1992),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홍태한(1997), 「서사 무가 '바리공주' 연구」, 경희대박사논문.  
홍태한(2000), 『인물전설의 현실인식』, 민속원.

V.Y. 프로프, 최애리 역(1999), 『민담의 역사적 기원』, 문학과 지성사.

<Abstract>

**A Study on the Accumulation aspect of Jacheongbi and  
Mundoryeong's talk**

**Lee, Yeong-ji(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ees in the object which Segyeongbonpuri, as Jacheongbi and Mundoryeong's talk had the motif of the shaman's genesis myth which is various. This story is many kind of narrative motif which have mythical contents.

Only the Cheju-Do area was handed down by tradition it sees with the regional isolate information by word of mouth which is an island the feature of motif of the universal shaman's genesis myth which in talk inside spreads out differently widely with national and the people is all over reflected.

From here, Narration feature of established narrative structure which will be becoming universal and to share a fork in standard, structure common point will let and it is not it will discuss a lot. But To Jacheongbi and Mundoryeong's talk, motif or characters which the shaman's genesis myths of inland keep or the people are multilayer accommodated to discover, it becomes.

Symbol characteristic of space mobile course and movement of 'Danggeumaegi' talk motif, surpass ability of the heroine who is appear in 'Baridegi' talk, Subject and spontaneous fate cultivation and the completion which the heroine shows from 'Gameunjangaegi' talk. There are story's motif and features of multi myth with Jacheongbi and Mundoryeong's talk which bites and like that talks letting and layer being accommodated and being accumulated, to be appearing

Like this point field is a possibility becoming the ground of the information by word of mouth flow and offspring occurrence of shaman's genesis myth is to try to ratiocinate

**Key words:** Cheju's shamanan verse, Accommodated aspect, Motif,  
Segyeongbonpuri, Agriculture God

이 름: 이영지

근무처: 경상사대부설중학교

주 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대동아파트 나동 107호

전 화: 055-755-9328

팩 스: 055-751-7516

전자우편: maig65@hanmail.net

논문 접수: 2008년 3월 31일

심사 완료: 2008년 5월 4일

게재 확정: 2008년 5월 11일

K C I